

2025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5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함

성경: 마 3:17, 12:18, 16:24, 막 9:7-8, 고후 2:10, 갈 1:15 상, 16 상, 골 2:16-17

I.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 마 3:17, 12:18, 17:5, 갈 1:15 상, 16 상.

- A.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우주 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분 아래 통일될 때 완전한 평화와 조화가 있을 것이고, 우주 안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것이다 — 골 1:15-19, 3:10-11, 엡 1:10, 22-23, 4:15-16, 사 55:11-13.
- B.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있으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있다 — 사 43:7, 빌 1:20, 고후 4:5, 고전 15:58, 요 17:23, 엡 1:23, 3:19-21.
- C.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재이다 — 골 2:16-17.
  - 1.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신 거대한 한 폭의 그림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 골 1:15-17, 시 19:1-6, 롬 1:20, 히 11:3.
  - 2.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매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과 안식을 가지며, 매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하고, 일 년 내내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과 누림이시다 — 골 2:16-18 상.
- D.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적으로 보고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갖고 계신 목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 고전 1:9.
  - 1.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숨(요 20:22), 생명의 물(4:14, 7:37-39), 생명의 떡(6:35, 48), 생명의 빛(1:4, 8:12), 생명의 거처(14:23, 15:1, 4-5)이시다.
  - 2.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각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번식시킴으로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 골 1:9-10.
  - 3.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정도까지, 즉 우리의 큰 기쁨과 우리의 지극히 큰 보상이 되시는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 엡 3:16-19, 시 43:4 상, 창 15:1, 요 15:11, 롬 14:17, 빌 3:14.
  - 4.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영이심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 중점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단지 객관적인 교리에 불과할 것이다 — 고전 15:45 하, 고후 3:17-4:1, 딤후 4:22, 고전 6:17, 요 4:24.
  - 5.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접촉할 때 그분의 말씀은 영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영이 될 때 그 영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점유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신다 — 엡 6:17-18, 요 5:39-40, 6:63.
- E.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누리는 비결을 배울 때 주님의 회복에 신실할 것이다 — 막 9:7-8, 행 26:19, 22, 고전 1:2, 9-10, 2:9-10, 고후 2:10, 딤후 4:9-18, 빌 1:19-21 상.
  - 1. 우리는 그분 이외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분께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럴 때 믿는 이들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고전 1:9, 계 2:4-5, 골 1:17 하, 18 하.

2.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중심과 선택과 선호와 입맛과 누림이신 그리스도만 주의한다면, 이것에 의해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주님의 회복 안의 교회 안에 보존될 것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빗나가 주님의 회복을 저버릴 것이다.

## II. 우리는 반드시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한다.

- A.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로 취했다 — 빌 1:21 상.
- B.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표현으로 취했다 — 빌 1:20.
- C.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의 생각으로 취했다 — 빌 2:5.
- D.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이 살아 낸 의로 취했다 — 빌 3:9.
- E.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겼다 — 빌 3:8.
- F.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쫓대로 취했다 — 빌 3:13-14.
- G. “형제님들,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장중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수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평판이 좋아야 하며, 그리고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거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미덕들로 취했다 — 빌 4:8.
- H.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으로 취하여 그의 품위 있는 생활로 살아 내었다 — 빌 4:13.
- I.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비결로 취했다 — 빌 4:11-12, 비교 4-7 절.
- J.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형시켜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기대로 취했다 — 빌 3:20-21.

## III. 우리는 다음의 방면들에 따라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얻으시도록 한다(빌 3:12, 비교 합 1:1).

- A.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를 감지하도록 한다 — 요 20:22, 출 33:11 상, 14.
  1.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곧 우리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 고후 2:10, 비교 엡 4:30, 살전 5:19.
  2. “그분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어나게 하시고 / 제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호 6:2) — 셋째 날의 실재는 부흥의 실재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인격, 임재이다(합 3:2).
- B.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밝고 분명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 계 22:1, 요 1:4, 8:12, 겔 1:22, 26.
- C.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이신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공급받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 고전 10:3-4, 요 6:57, 4:10, 14, 24, 고전 12:3 하, 13.
- D.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자라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한다 — 골 2:19, 고후 3:18, 롬 12:2.
- E.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우리가 활력을 갖고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 단 11:32 하, 행 1:8, 5:20, 13:1-4, 고전 14:31, 비교 겔 3:1-3, 시 68:11-13, 19.

**IV.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취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얻으려면, 반드시 계속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배워야 한다.**

- A. 몸의 실재이신 주님께서 그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 — 딤후 4:22, 엡 1:17, 2:22, 3:5, 16, 4:23, 5:18, 6:18.
- B.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실질적인 비결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다 — 롬 8:6.
- C. 영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풍성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살고 신약 사역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길은 계속 우리의 자아를 거절하고 우리의 혼생명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기를 훈련하는 것이다 — 고후 3:3, 6, 16-4:1, 딤후 4:22, 빌 1:19, 롬 8:16.
- D.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수행하는 주님의 일은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영에서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으로 끝난다 — 고전 2:4-5, 13, 15, 고후 3:6, 13:3, 비교 시 42:7 상.
- E. 우리에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영이 있고, 하나님을 살아 내고 표현하는 혼이 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 내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오락이 되어야 한다 — 요 4:10, 14, 24, 6:57, 눅 1:46-47, 고전 10:31.
- F. 하나님께서 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목적을 위해서이지, 혼 자체의 누림이나 선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이기적인 누림이 없다. 바울의 사역을 믿는 이들의 누림을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은혜로 믿는 이들에게 분배하는 것이었다 — 창 1:26, 2:7, 엡 3:2.
- G. 우리의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혼의 갈망과 선호와 선택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첫 번째 죄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것, 곧 자아를 만족시킨 것이었다 — 창 3:1-7.
- H. 우리의 자아(우리의 타락한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든 사탄과 연결되어 있고 귀신들과 연결되어 있다 — 마 16:21-27.
  - 1. 여호와와 정속하지 못한 아내인 이스라엘은 악하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리면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호 4:1, 엡 4:17-21.
  - 2.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육체 안에 있을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처럼 처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빌 2:1-2, 요일 1:3, 엡 4:17-19, 창 20 장, 비교 12:11-13, 13:18.
  - 3.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서 휴가를 가질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 요일 1:3, 비교 시 31:20.
- I. 기도는 진정한 자아 부인이다.
  - 1. 사실상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록 짧은 기도이지만 이러한 기도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 롬 10:12-13, 갈 2:20.
  - 2.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귀신들을 내쫓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적용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 막 9:14-29.
  - 3. 기도하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치물이 되신 것에 대한 이상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 — 막 9:2-13.